



# 여름 휴가 산사서 休의 여행을...

## 화순 쌍봉사



“화순 쌍봉사는 1974년 소설을 쓰기 위해 처음 찾은 사찰입니다. 인적이 드물어 조용한 사색이 필요하다면 이곳을 찾곤 합니다. 절 분위기가 마치 바람조차 쉬어가듯 티베트 고원의 사찰들과 같습니다.”

순천 송광사(松廣寺) 말사인 화순 쌍봉사 계열의 사찰이지만 당시 사세가 번창했던 구산선문의 사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쌍봉사를 창건한 도운(道允) 스님이 사자산문의 기초를 닦아 영월 법흥사가 이를 계승해 구산선문을 이루었다. 쌍봉사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화순에서도 오지에 속한다. 주변에 숙박할 만한 곳이 드물 정도다.

❶ 찾아가는 길  
화순읍에서 능주방면으로 이양으로 간 후 금릉리 삼거리에서 보성 북내 방면으로 가는 818번 지방도를 따라가면 쌍봉사가 나온다. 다른길로는 이양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가면 매정1구 삼거리 방면에서 좌회전 후 직진하면 된다.

“조용한 사찰에서 차분히 앉아 차 한잔 하심이 어떨런지요”



〈행복한 선여행〉 정찬주 작가

## 곡성 관음사



“곡성 관음사는 심정이 설화가 얽혀있는 사찰입니다. 사찰 앞에 작지만 깨끗한 개울이 흘러 물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고향집 같은 편안함, 또 맑고 향기로운 차 한잔이 떠오르는 사찰입니다.”

곡성 검장산(劍藏山)계곡에 위치한 관음사는 화엄사 말사로 관음도량이다. 사하촌 이름도 관음마을로 내륙 관음사 중 대표적인 관음사찰이다. ‘곡성 관음사는 항상 연락부절(連絡不絶, 왕래가 끊이지 않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왕래하였다고 전해진다. 관음사는 〈심정전〉의 원류로 추정되는 원효장 설화를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❶ 찾아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옥곡IC에서 화순 동북 방면 15번 국도를 따라가면 효공원이 나온다. 심정이의 효심을 알리기 위한 공원인데 이 공원 왼편으로 203번 지방도를 따라 5km 성덕산 방면으로 들어가면 된다.

## 봉화 청량사



“청량사 주변 명일천에서는 지금 이맘때면 은어가 잡힙니다. 그만큼 물이 깨끗한 곳입니다. 주변에는 연꽃 잎처럼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청량산은 12개의 봉우리의 층암절벽이 펼쳐지는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봉화 연화봉 기슭 한 가운데 연꽃처럼 둘러쳐진 꽃술 자리에 자리 잡은 청량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송광사 16국사의 끝 스님인 법장 고봉선사(1351-1426)에 의해 중창된 천년 고찰이다. 창건 당시 상당동 33개의 부속 건물에 갖추었던 대사로로 봉우리마다 자리잡은 암자에서는 스님들의 독경소리가 청량산을 가득메웠다고 한다.

❶ 찾아가는 길  
중앙고속도로 영주IC에서 봉화방면으로 향한 뒤 봉화삼거리에서 다시 영양 봉성 방향으로 우회전 후 11km 가량 명호강 강길을 따라 가면 청량사 이정표가 나온다.

“가족과 함께 물놀이, 트레킹도 하고 사찰도 참배 할 수 있습니다”



〈사찰여행 42〉 유철상 작가

## 고창 문수사



“고창 문수사는 작은 절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찰입니다. 특히 문수사 옆 신기계곡은 물놀이도 함께 할 수 있으며 트레킹 테크가 만들어져 있어 가족, 또는 연인들이 산행을 하기에 좋은 사찰입니다.”

고창 선운사 말사인 문수사는 의자왕 4년(644년) 신라 자장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귀국하는 길에 고창 지역을 지나다 당나라에서 수행하던 청량산과 같은 느낌을 받아 이곳 석굴에서 7일 동안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기도 중 땅 속에서 문수보살이 나오는 꿈을 꾸어 그곳을 파보니 커다란 문수보살상이 나와 절을 세우고 문수사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❶ 찾아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고창IC에서 21번 국도를 따라 영광 방면으로 내려가면 고수면 소재지가 나온다. 그곳에서 문수사 이정표를 따라 가면 조산 저수지가 나오며 조금 더 지나면 문수사가 나온다.

## 진도 쌍계사



“남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사찰입니다. 아울러 신라 고찰의 역사성도 잘 간직한 명찰이죠. 산사의 고즈넉함과 생동감 넘치는 바닷가의 멋과 맛이 조화돼 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사찰입니다.”

대흥사 말사로 신라 문성왕 19년(857년)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쌍계사는 절 양면으로 계곡이 흐른다해 쌍계사라 불린다. 쌍계사가 위치한 진산은 진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산의 난대림은 쌍계사천년상록수림대로 천연기념물 107호로 지정되었다. 양 계곡 물이 모이는 사천저수지는 진도에서 최초 수원지로 발생지이기도 하다.

❶ 찾아가는 길  
서해안고속도로 목포IC에서 77번 국도로 진도에 도착하면 쌍계사 이정표가 나온다. 부산 방면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순천IC에서 나와 2번 국도로 강진 방면 다시 18번 국도를 이용하면 된다.

“바다와 산의 정취와 어우러진 절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죠”



〈우리절을 찾아서〉 신대현 작가

## 가평 현등사



“가평은 교통을 비롯해 관광 편의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입니다. 운학산은 경기 금강산으로 불릴 정도로 산세가 좋습니다. 근심이 없다는 무우폭포와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머물렀다는 사적 등에서 불교문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말사인 현등사는 신라 법흥왕 때 인도도 마라가미(摩羅訶彌)가 신라에 와 그를 위해 절을 창건하고 산 이름을 운학산이라 한 데서 유래한다. 이후 고려 효공왕 2년(898년) 고려가 개성에 도읍을 정할 것을 미리 한 도선 대사가 동쪽이 허해 보인 땅을 찾다 운학산 옛 절터를 보고 중창했다고 전해진다. 조선 중기 서경덕(徐敬德)의 부도 등이 있다.

❶ 찾아가는 길  
의곡순환고속도로 구리 톨게이트에서 퇴계원 방면 국도에서 서과 교차로까지 직진 후 현리 방향으로 우회전 8km 진행하면 현등사 이정표가 나온다.

#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훤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훤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훤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강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강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부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강치리한 금강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정지갑

❶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❷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정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폭도 안종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폐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와도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구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구를 풀리치며 사업장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흘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세담,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우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의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풍양사주사, 인형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점, 주유소, 신세교 위법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